



「사랑의 손길」은 '천주교 서울대교구'와 '한마음한몸운동본부'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.

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

“
한솔이의 꿈을
지켜주세요
”



“엄마, 나 머리 아파”

2013년 초등학교 6학년 여름날 오후, 세상 걱정 없이 뛰 어놀던 한솔이의 갑작스런 말에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감 기인가 싶어 동네병원을 찾았습니다. 동네병원에서는 피검 사를 해보더니 큰 병원에서 상세하게 검사할 것을 권유하 였고,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희귀난치병인 ‘상세불명 의 무형성 빈혈’로 진단받았습니다.

한솔이는 현재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한 솔이 엄마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, 어머니가 재혼 하면서 버림받아 남의집살이를 하면서 성장했습니다. 아이 들 아빠와는 음주, 도박 등의 문제가 심각해 결국 한솔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이혼했고, 투병 소식을 들은 후로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.

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며 눈치 를 보며 힘겹게 일을 했지만 남편이 남긴 1억 원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. 그래도 자신이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고단한 삶을 힘겹게 버텨왔습니다. 아무리 힘든 하 루여도 아이들이 웃는 모습에서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으 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한솔이의 갑작스런 발병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.

한솔이는 철분과 혈소판 생성이 되지 않아 매월 1~2회 입원하여 정기적인 수혈을 받고 있으며, 상태가 나빠지면 수시로 수혈받으러 내원해야 합니다. 그러다 보니 매월 병

원비뿐만 아니라 경북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고 가는 교통 비와 입원생활비를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

더욱이 한솔이 엄마는 개인파산 상태로, 가정의 수입은 3인 가구 정부지원금 월 115만 원이 거의 유일합니다. 엄 마가 식당 설거지,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일해서 치료비 와 생계비에 보태고 있지만,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어 려워졌습니다.

엄마는 사실 본인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 면서도 경제적 형편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. 병 원에서는 한솔이가 완치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대 략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

“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게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.” 아픈 자신 때문에 제 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어린 동생과 아픈 엄마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한솔이.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게 는 더욱 힘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솔이는 언젠가는 건강 을 회복할 것을 믿으며,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격 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

한솔이의 꿈은 간호사입니다. 꿈도 많고 재주도 많은 한 솔이가 소원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, 신자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세요.

* 모아주신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김한솔 양이 경제적 부 담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치료비와 생계비로 지원됩니다. 총 지원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어진 후원금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‘치료비 지원사업’에 지원됩니다.

후원계좌 | 우리은행 1005-180-003488 (재)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
2021년 2월6일~3월5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'김한솔 님'(한마음한몸운동본부 치료비 지원사업)을 위해 쓰여집니다.

서울주보 홈페이지(cc.catholic.or.kr)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부는 소득 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 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

